

▶ 8월 사랑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愛加倍·Агапэ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선교특집

Mission trip | China Kenya Honduras

선교특집

양화진 | 조선을 자기 조국보다 더 사랑한 외국인들의 묘지

추천영화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

QBC 여름 특강
신약통독 Guide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2018 여름 성경학교 VBS
아하~ 예수님!

2018. 8

www.kapcq.org



“한 자매는 10일간의 성경공부를 위해 쌀자루를 이고 수 백리를 걸어 왔고, 다른 이는 아이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때 묻고 남아빠진 성경이 들려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QBC는 몇 리 길에 있나요?
우리들의 손에는 혹시
금빛 반짝이며 티끌 하나 없는 성경이
들려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제일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피터즈선교사는 아내를,
레이놀즈선교사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모두가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2018년 퀸즈장로교회 단기선교의
떠나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셨나요?

배경 사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에 위치한 묘원 원리는 향구이자 양화나무를 수비하는 전경인 양화진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라 양화진이라고 부른다. 고종황제 이후 대한민국의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인사 500여명의 묘가 있다. 그 중에서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 및 가족들의 수는 145명. 최초로 안장된 인물은 헤론니(W.Heron)으로, 1890년 7월 28일이다. 제일한국학 연구, 레이놀즈(성경 한글번역, 무예(백경 선교), 병계(배재학당), 배말(대한매일신보 창간), 베어드(숭실학당 설립), 브로크만(YMCA 설립), 소다 가이세(고아원 운영, 유일한 일본인 안장자), 소(국내 군중 창설), 스크랜턴(이화학당, 삼일초학당 설립), 이원(백제(배재학당 설립), 언더우드(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설립), 예비슨(세브란스병원 설립), 해문(재중원 운영) 등의 선교사가 안장되어 있다.

남편의 무게, 가스통의 무게

“사랑의 무게는 얼마일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병원의 4층으로 100kg 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를 업고 올라가던 여인을 그 건물 2층으로 25Kg 가스통을 메고 올라가던 청년이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이 가스통을 메고 2층까지 가기도 힘든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 무거운 분을 업고 4층까지 가려고 합니까?”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업고 있고, 청년은 가스통을 메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교회를 사랑하면,

내 주님을 사랑하면

그로부터 오는 무거움이 실제로는 아주 무겁더라도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The Weight of Love

I read an article, titled, “How Much Does Love weigh?” The story is like this:

There was a woman who was carrying her husband on her back, who seems like about 220lbs. She was carrying him up to the 4th floor by stairs, because the elevator at the hospital was broken. While she was carrying him upstairs, a young man who was carrying a gas container that seems it weighs about 55lbs to 2nd floor saw her and asked her, “Ma’am, how can you even try to carry that heavy man up to the 4th floor? Even carrying this gas container to the 2nd floor is so difficult.”

The woman answered, “you are carrying a gas container, but I am carrying my husband. That’s why.”

If you love, you can do difficult things easy
If you love your husband,
If you love your wife,
If you love your church,
Even if the burden from him/her/it so heavy,
you won’t feel heavy.

Вес мужа и газового балона

“Сколько весит любовь?”, так называлась одна статья. В этой статье была такая история. В одной больнице сломался лифт и одна жена, на себе понесла примерно 100 килограммового мужа на 4 этаж. Где то на 2ом она встретила парня, который нес на себе 25 килограммовый газовый баллон. Этот парень спросил: “Слушайте женщина, мне даже спускать этот 25 килограммовый газовый баллон тяжело, как вы можете его на 4ый нести?” Эта женщина ответила: “Я так могу, потому что, я несу мужа, а ты несешь груз”.

Если любишь, ты не чувствуешь вес.

Если любишь своего мужа

Если любишь свою жену

Если любишь свою церковь

Если любишь своего Господа

То тогда, каким бы тяжелым нибыл бы груз,

Он чувствуется, как самый легкий.

丈夫的重量，煤气罐的重量

读过一篇文章名叫“爱的重量到底是多少”。

大概内容是讲有一家医院的电梯出现故障，人们只能走楼梯。有一位年长的女士，将体重大约有100kg的丈夫背在自己的身上，要从一楼背到四楼。在上楼梯时，这位背着自己丈夫的年长女士遇到了一位要上二楼的年轻人。

那位年轻人对她说：“我背着25kg煤气罐上去二楼都觉得很累，您怎么可能把比你自己还重的人背着走到四楼呢？”

那位年长女士说：

“我身上背的是我的丈夫，年轻人你背着的是煤气罐”。

如果真的爱，就不会觉得过于沉重。

深深爱着我的丈夫

深深爱着我的妻子

深深爱着我的教会

深深爱着我的主

如果真的这么想，任何要面对的负担，即便实际是有重量的，但心甘情愿的心感受到更多的应该是“甜蜜的重量”

아가페

제413호
2018.8

8월 교회 광고

제 3회 Summer Music Camp
교육위원회 - 특별활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Summer Music Camp 가 8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본교회에서 3일간 열린다.

올 해로 3번째를 맞는 Summer Music Camp 에서는 오케스트라와 합창 클래스로 악기별레슨과 성악레슨으로 개인의 실력향상을 도모하며 합주와 합창을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 캠프 마지막날인 8월 24일 금요일 저녁 4시 본교회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열린유아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8월 31일 기준으로 만 18개월에서 3세까지
2)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9월 첫 주까지 각 부서 통해 *외부: 9/11(화) 오전 10:00 선착순 40명
3) 개강: 9/13(목) 오전 10:00, 유아부실
4) 문의: 이명옥 전도사 646)327-6438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Pre K-12학년
2) 개강: 9/15(토) 오전 9:30
3) 등록: 8/18~9/8 오전 10:00-오후 2:00 (한국학교 사무실)
*불학기 수강생들도 등록해야 합니다 * 한글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4) 문의: 함미희 전도사, 김홍덕 권사 (718-886-4646)

- 2 신앙시론 | 사랑의 무게
- 5 송이꽃 같은 말씀 | 중요한 것
- 7 2018년 7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 8 2018 단기선교특집 - 양화진을 가다 | 조선을 자기 조국보다 더 사랑한 외국인들의 묘지
- 11 2018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 12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 15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중국어 예배부 |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인생
- 16 2018 단기선교 | China Missions trip 중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 중국 단기선교 간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 | Honduras Missions trip La Mosquitia:Forgotten by People yet Remembered by God | Kenya Missions Trip 복음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
- 21 권장 바이블 컬리지 | QBC 여름 특강 - 신앙통독 Guide 하나님 나라
- 22 교육부 | 여름 성경학교 VBS 아하~ 예수님!

26 교육부 | 특별활동위원회 | 제 1회 G2G 찬양발표회

- 28 교육부 | 여름수련회 | Deep relationship with God | Holy Sprit | The ten commandment
- 30 교육부| 고등부 졸업예배 |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
- 31 교육부| 교회학교 졸업예배
- 32 이달의 추천영화 | 일사각오
- 35 이달의 추천도서 | 기도의 능력

제 12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연재 | 법률과 세무상식 | 상속과 증여에 관한 미국의 법률 및 세무상식

- 38 십자말 성경퀴즈
- 39 2018 년 6월 새가족 안내

김성국 목사
편집부
편집부
조성순 집사

편집부
편집부
Xiaomin

천위제 전도사 陈玉捷传道
Lin Zhenzhen

Peter Cho
류기정 청년

편집부
윤지영 권사, 배운영 집사, 이금숙 집사, 이소영 전도사, 안미영 집사, 김재형 목사
이정훈 집사 영미라티볼 집사

계연란 권사, 이명옥 전도사, 손요한 전도사
Annabelle Choi
Paul Choi
Sung Gook Yang

편집부
정혜경 권사, 권민지 학생
최성은 집사
최진식 전도사

편집부
정성호 장로
김기호 장로
새가족부

배워봅시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HANANLM SARANGUN YONGWON HASIPNIDA.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上帝的爱是永恒的爱. /싸양띠더 아이쓰 옹헝더 아이!

ЛЮБОВЬ БОГА, ВЕЧНА LUBOV BOGA VECHN /류보비 보가 베즈나

God's love is eternal. Gatz lov iz itonol./갓츠 러브 이즈 이터널.

중요한 것

**2018년 6월 3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30:1-38**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말씀순종

(출 35: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이해만 하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옛새 동안 일을 하여 돈을 벌어 이 땅의 필요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 날을 통해 거룩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 날은 죽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세상의 어떤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 필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일을 하지 않으니 빈손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공급되는 날입니다. 내가 쌓은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면 세상의 문제는 한 없이 작아집니다.

하늘을 걸어 갑부 된 사람을 아십니까?

이 영상의 주인공은 이덕희씨입니다. 그는 일자리에서 쫓겨나 절망하던 가운데 지붕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붕에 올라가 알아려는 사람이 없기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일을 하면서 큰 재산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지붕에 올라가 돈을 벌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10억도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영적으로 높은 곳을 올라가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나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내 영혼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날입니다. 하늘을 걸어 영적인 갑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38장 1,3절)

주께 더 가까이, 우리들의 일생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성막을 짓는 것에 앞서 내 영혼의 성전을 먼저 아름답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2. 자원헌신

성막을 지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고 여러차례 말씀합니다.

(출 35: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 35:29)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기에 구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구원이 사라지지 않았으나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

죄는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도 앗아가고 자원하는 마음도 가져갑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는 자원하는 심령도 다시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출 35: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출 35:9)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보석

자기의 소유한 것 중에 선택하여 주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금은 보석 같은 것은 없을 수 있어도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은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와 보석의 차이

내가 이미 받은 은사를 드러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보석 같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일생을 받은 보석 같은 은사를 묻어두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은사를 쉽게 내 던지는 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건축가가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돌인데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버린 것입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니콜라 칼리니치를 아십니까? 오늘 프랑스와 월드컵 결승전을 치를 크로와티아의 대표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대표선수가 아닙니다.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감독이 경기 끝 부분에 교체 선수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를 선발로 내보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고 꺾병을 부려 출전하지 않았다가 대표팀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영광스런 결승전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묻어 두거나, 내버리면 수치스러운 날, 책망의 날을 맞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할 때 마침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3. 성령충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자원헌신 하는 것이요또 하나가 있으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출 35: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은사와 보석의 차이

3. 성령충만

은사와 보석의 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자원헌신 하는 것이요또 하나가 있으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출 35: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은사와 보석의 차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일은 창조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은사와 보석의 차이

성령은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계시면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성막을 잘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성막을 영어로 tabernacle 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의 tabernacle은 성령충만으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도 타버나클 처치가 있습니다.

지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마친 다음 날 목요일, 최원일장로님과 함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교회도 옛 극장 구입한 것이어서 낡고 불편했습니다. 그 때 담임 김 삼발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공부 시간에 잠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성령충만으로 역동적인 예배는 물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 자원 헌신, 성령 충만 입니다.

2018년6월 24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32:1-35)

참 신과 거짓 신

세상에는 참 신과 거짓 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참신과 거짓 신을 정확히 구분하여, 오직 참 신을 믿고 섬기므로 영생과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1. 화려한 거짓 신

거짓 신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만든 신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귀가 멀고 눈이 먼 자들이 됩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영적인 귀와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됩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거짓 신의 대상을 바꾸어 가

2018년 7월 1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33:1-23)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성공 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잘 되십니까? 성공하거나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거기에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것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얻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하나님 없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동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 천국 가는 그 날까

2018년 7월 8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34:1-35)

지경과 광채

1. 지경을 넓혀라
우리는 현재라는 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지경,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지경이 넓어지길 축원합니다. 지나간 일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상처와 과거의 결정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오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른

며 좇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야할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입니다. 명령 중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2. 인도자 참 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이 있으시기에, 능력이 있으시기에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시기도 들으시기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 앞에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도자로 보내 주신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그를 만나면 그동안 멀었던 귀와 눈이 열립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측량 못할 은혜로 풍성

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1.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몸을 단장한 장신구를 떼어 낸다는 것은 목이 곧은 교만을 버리고 내가 잘났다는 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철, 곧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다 떼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앙모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좋아하며 바라보는 것이 앙모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와 보석의 차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나의 오늘이 결정짓습니다. 모든 민족, 땅 끝에게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일으켜야 합니다. 개인, 교회적으로 지경은 넓어져야 합니다. 넓혀진 지경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친히 내게 필요한 일을 해주십니다.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하며 또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히 채워 주시는 분은 거짓 신,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오직 참 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3. 거짓 신을 버리고 참 신을 따르라
하나님 보다 더 아끼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낀다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금송아지였고, 그는 참 신이신 하나님 대신 거짓 신,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나의 금송아지입니다. 내게 거짓 신, 금송아지가 있다면 다 버리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십시오. 그 분에게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거짓 신, 금송아지가 가득 찬 세상에 참 신이신 하나님만 높이는 레위 자손 같은 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3. 순종하라

하나님에 대해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앙모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앙모하며 예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 순종하라
모세는 자기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태아가 살 길은 엄마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하므로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은 바위 위와 바위 틈의 순종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 앙모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2. 광채를 밝혀라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도 요한이 밤토섬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환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절망이나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고 광채를 밝히고, 뜨거운 7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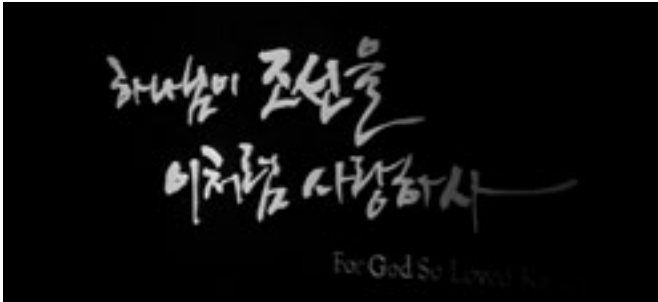
조선을 자기 조국 보다 더 사랑한 외국인들의 묘지 ‘양화진’

조성순 집사

지난 3월 교회 요셉 도서관에서 주중에 읽을 책을 열람하던 중 한권의 책이 눈에 들어 왔다. ‘양화진 선교사 열전’ 1980년 중반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을 방문했던 기억과 함께 책의 내용이 궁금해 졌다.

책을 읽으면서 책에 실린 사진들의 현장인 양화진은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마침 7월에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잠시 들를 일정이 있었기에 양화진 방문 계획도 포함을 시켜 놓았었다.

우연이라 말하기엔 놀랍게도 선교의 달을 준비하며 양화진에 관한 기사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가페 편집위원회와의 상의를 통해 양화진 방문을 마친 후에 기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방문한 양화진은 서울시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을 이용하여 합정역에서 하차한 후 7번 출구로 나와 2호선이 통과하는 양화진길을 약 150미터쯤 내려가다보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이었다. 여러 지방과 원근 각처에서 모인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으나 소란스럽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로 관람은 시작되었다. 개인 관람은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그룹투어만 허용되었기에 등록을 마치고 소개 영상을 본후 대기중인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그룹별로 묘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투어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들르게 된 곳은 선교사님들의 아기로 태어나 13개월 이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들의 묘지가 모여있는 묘원이었다. 열악한 환경에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웠을텐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오죽하였으랴! 더욱 숙연해 지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관람코스엔 3~4대가 모여있는 가족묘도 있었고 민족상잔의 흔적으로 총탄으로 깨어진 많은 묘비들도 눈에 띄었다.

유난히 뜨거운 날씨는 잠깐의 묘원 방문을 어렵게 하였지만 자신들이 태어난 조국보다 이 땅과 한민족을 더 사랑하여 조선땅에 육신을 묻은 선교사들의 섬김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었다.

1979년 서울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양화진 외인 묘지가 옮겨질 위기에 처하여 책의 저자 전택부는 1982년 까지 기독교보사에 이어 크리스찬 신문에 연재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소개하며 서울시 결정의 부당성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교계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양화진 구석 200평을 잃는것으로 위기를 넘기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은 한강변 절경이 아름다워 풍류객들의 놀이터로 사랑을 받던 곳이다.

병인양요, 병인교란, 임오군란을 겪으며 외세를 끌어들이던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대원군의 폭정으로 1866년 에서 1867년 사이 8천 여명의 천주교인들이 전국에서 무참히 처형을 당하게 될 때에 수많은 신자들을 참수한 곳이 바로 이곳 양화진에 있다. 천주교에서는 그곳을 성지로 여기며 절두산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위하여 상비군이 주둔한 한강변의 송파진, 한강진과 더불어 3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이다. 1890년 선교사 헤론이 이곳에 묻히며 외국인 묘지로 국제간의 조약에 따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관리하에 있다가 1985년 6월 17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당시 이사장 한경직목사)로 귀속되어 실질적인 묘지 조성과 관리를 받고 있다.



양화진 열전에 소개된 선교사 이야기

헤론

병자들의 친구 헤론은 1856년 6월 영국에서 출생하여 14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884년 봄 최초의 장로교파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고 부인 김슨과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1885년 6월 21일 입국하였다. 1890년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이며 이로인해 양화진 외인 묘지가 시작되었다.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 원우두이며 영국에서 출생하여 1869년에 미국으로 이민. 미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1885년 4월 5일 인천에 상륙하였다. 개신교 목사로는 제일먼저 조선에 들어왔다. 그의 헌신으로 수많은 포상을 받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으로 추대되어 기념비가 새문안교회 마당에 남아있다. 직접 전도하기 보다는 병원사업, 고아사업, 교육사업에 치중하였다. 여행가요 탐험가였던 그는 조선 전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미대륙, 예루살렘을 여행하였고 위대한 정치가로서 미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를 조선에 끌어들이는 장본인 이기도하다.

오늘의 한국 YMCA를 있게 하였으며 1889년 북 장로교회부터 광혜원에 파송 받은 여의사 홀튼과 결혼 하였다. 난폭한 민중과 구경꾼들의 습격을 받고 강도를 만나고 호랑이가 으르렁 거리는 계곡을 지나는 여정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1890년 9월 첫아기 원한경을 낳았고 그보다 9살 많은 김규식(훗날의 새문안교회 초대 장로)을 양자로 들이기도 하였다. 홀튼은 명성황후 민씨의 시의로 있으며 궁안 연못에서 자녀들과 고종, 황후, 왕세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자



언더우드 평양사경회

연스럽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이후 귀족학교를 세우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에 일인들에게 민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터지게 되었다. 1916년 10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더우드가 미국 고향에 묻혀 있다 1999년 이장됨으로 먼저 묻혀있던 아내 홀튼, 아들 원한경, 맏손자 원일한 까지 모두 3대가 묻힌 가족 묘지가 되었다.

아펜젤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그는 최초의 교육가요 성서 번역가, 편집인, 여행가요 위대한 목회자로서 1885년에서 1902년 목포 앞바다에 수장되기 까지 17년간 사역하였다. 당시 갑신정변의 어려움으로 언더우드보다 받은 먼저 조선땅에 디뎠으나 일본으로 돌아 갔다가 1885년 5월 3일 다시 입성하였다. 1886년 6월8일 고종이 배제학당의 이름을 지어주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되었고 1887년 10월엔 감리교 정통교회를 창립하였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위원회 참석차 배를 탔다 침몰하는 배에서 동행자를 구하러 다시 들어 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수장되었다. 그의 아내 엘리스 아펜젤러는 이화학당을 위하여 25년간 헌신하였고 교장으로서는 18년을 재임하다가 1950년 2월 예배를 인도하던중 뇌출혈로 6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헐버트

장로교 선교사이며 헤이그 밀사 사건과 배일 운동에 가담하였다. 1903년 한국YMCA 초대 회장을 지냈고 조선에 불익한 비밀조약을 체결한 미국 정부에 반대하여 다른 선교사들과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고종황제의 밀사가 되어 미국 대통령에게 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일로 추방되어 유럽 각지를 방황해야만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때 대통령 이승만이 헐버트를 국빈으로 초대함에 84세의 나이에 광복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싶어 돌아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국땅에 묻혔다.

베델

영국인으로 대한 매일신보를 창설하였고 일본의 침략 만행을 국내외에 폭로하였다. 항일 투쟁기에 민중의 방패,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때 입국하여 한국인들을 도와 일제에 항거하며 활동하다 일본의 압박에 영국 고등법원이 3주간 금고형(유배)을 내려 상하이에 갔다 돌아와 1909년 서대문 자택에서 37세의 나이에 ‘한국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무어

북장로교 선교사 모삼률은 1892년 입성하여 6개월만에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적응을 잘하여 곤당골 교회를 세우고 1900년 까지 25예배 처소를 세워 성인 교인이 850명에 이르게 하였다. 신분 계급을 타파하고 백장 전도와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



방거(병커)선교사 묘비

빙커

한국 이름 방거는 1886년 7월 4일 조선에 도착. 동학 농민운동, 청일 전쟁, 명성황후 시해,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어려운 한민족의 고난상을 목격하며 독립을 위한 근대식 민권 운동의 동역자,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투옥된 배재학당 학생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감리교 선교부 선교사로 조용히 전도와 교육사업에 헌신하였다. 미국에서 1932년 11월 소천하여 1933년 양화진에 옮겨져 안장되었다. 그의 비석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새겨져 있다 ”날이 새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소다 가이찌

일본인으로 유일하게 우리 정부의 문화 훈장을 받고 양화진에 묻힌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며 1905-1945년 그리고 1961-1962년 까지 41년간 오로지 한국 고아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 하였다. 1899년 어느날 술에 취해 방황하며 길에서 거의 죽게 된 그를 이름 모를 한국인이 도와 생명을 구하게 되고 6년뒤 한국에 넘어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정치적 격동기를 체험하며 1906년 월남 이상재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1921년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 지부장으로 취임하였고 8.15해방까지 천여명의 고아를 수용하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 1947년 11월 부터 성경책과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들고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으며 일본 전국을 도보로 순례하며 전도하였다. 1961년 95세의 나이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고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사랑을 전하였고 1962년 3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레이놀즈

남장로교회 선교사 성서 번역가, 언어학자, 신학자, 목회자, 총회장등을 역임한 레이놀즈는 언더우드 선교 보고를 듣고 큰 자극을 받아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하였고 남 장로교회 실행 위원으로 부터 그런 미개한 나라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다고 거절을 당하였다. 언더우드로 하여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게 하고 2년을 예상하고 파송과 지원을 위해 기도하던 것이 2개월만에 응답되어 1892년 11월에 제물포로 입성하였다. 1863년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를 결성하고 전도 대상을 상류층에서 서민, 부녀자, 청소년층으로 하여 성경을 비롯한 모든 문서사업을 순 한글로 진행하였다. 히브리어 '엘로힘' 히랍어 '테우스'를 천주교는 천주로 번역 할 때에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과정의 중대사를 전부 그가 도맡아 발표하였다. 1900년 신약 성경완역의 중심에 있었고 1910년 구약 성경번역에 거의 독보적인 구실을 하였고 1937년 은퇴전까지 신구약 성경개정판을 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신약, 구약전서, 성경전서



하였다. 만아들 데이비스는 태어난 1893년 죽고 둘째 존 볼링은 1894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나 1970년 테니스 에서 죽을때 까지 한국을 사랑하여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홀

평양지역의 개척선교사 캐나다 출신의 의사이자 목사인 그는 1891년 12월에 파송되어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로 늘 한복을 입고 우리 음식을 먹으며 한 민족과 고락을 같이하다 무시당하고 소외된 나라, 미신을 숭상하고 우매한 국민들을 위하여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드렸던 그는 1887년 무디의 집회에서 도전을 받고 1891년 북감리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것이다. 청일 전쟁으로 길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하고 죽어 넘어진 군마들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신자들을 심방하고 무너진 교실을 세우고, 밤에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전염병에 걸려 1894년 11월 3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이 평양에 기홀 병원을 설립하였다.



셔우드홀의 왕진가방

터너

영국출신 성공회 신부 1890년 9월 제물포로 들어왔으며 선교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선구자 역할하였으며 YMCA건물을 건축하고 기독교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베어드

미 북장로교 선교부 파송 초대 선교사이며 교육자로 송실대학을 1897년 10월 창설 발전 시켰다. 1904년 중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 시킨후 1905년 대학 교육을 시작하여 1908년 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12년 105인 사건, 1919년 3.1절 운동, 1930년대 신사참배 반대운동등으로 항일 운동에 관여하여 송실은 민족의 얼과 역사를 지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모두 다 가자, 모두 다에게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1891년 2월 입국하여 창설한 송실학교는 장로교가 세운 최초의 정규 중학교이며 발전하여 오늘의 송실대학을 있게 하였다. 1931년 11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무덤과 비석은 송실 구내에 있었으나 8.15해방 후 1959년 그의 아들에 의해 비석만 양화진에 옮겨졌다. 그의 아내 애니 아담스는 남편의 교육사업과 선교를 훌륭히 도왔고 교과서를 번역,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지침서를 쓰는등 많은 문헌을 남겼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나서며...

양화진에는 모두 417기의 묘지가 있고 그 가운데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145기의 선교사 묘지가 있다.

이외에도 선교사들의 무덤은 한반도 여러곳에 흩어져 있으며 3.1 운동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우는 한국명 석호필 (윌리엄 스코필드)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는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새벽 예배를 통한 한 민족의 기도, 나무를 뿌리째 뽑는 기도의 열정,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던 평양의 각성운동을 일으킨 한 민족의 신앙은 1887년 언더우드의 사택에서 시작한 정동교회보다 앞서 1883년 만주에서 열병에 걸려 스코틀랜드의사에게 치료를 받다 그의 친구인 헌터목사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의주 상인 서상륜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한국 최초의 자생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전하는 이 없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을까? 죽음을 두려워 않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마지막 관망 코스를 들어가니 선교사들이 건넌어야 할 바닷길이 바로 눈앞에 재현되고 있었다.

이 땅에 발을 내어 딛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포함할 뿐 아니라 후대들마저 저들의 헌신과 삶을 다 드러 한 줌 흠으로 남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 하셨고, 이를 지켜 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증거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양화진에 남은 선교사들 처럼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1883년 의주상인 서상륜을 통해 들어온 예수성교 누가복음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퀸장 연합찬양대**

편집부

뉴욕지역 최대의 연합집회인 2018년 할렐루아 복음화대회의 마지막날인 7월11일(수),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가 대회 마지막 예배의 찬양대로 섬겼다. “우리 세상을 보자”(지휘 소유영 전도사)를 찬양한 150명의 퀸장 연합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를 대신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석, 연합집회의 의미를 높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대회에 임했다.

이날의 연합찬양대 모습을 두고 '아멘넷'은 '바로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였던 것은 퀸즈장로교회 때문이었다. 퀸즈장로교회는 무대 찬양대석을 가득 채웠으며, 밤 11시에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오랜만에 보는 충만한 모습이었다.'라고 보도했다.

행사 1시간 전인 7시부터 속속 도착한 연합찬양대는 준비된 샌드위치로 간단히 요기한 후 예배 30분전 마지막 연습에 임했다. 무대 정열을 위한 사전 무대입장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배 중 찬양대석 입장 시간도 수시로 변경, 지연되었다. 150명의 찬양대원은 무대 뒤 좁은 공간에서 한시간 넘게 땀을 쏟아내며 긴 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8시20분경, 드디어 무대에 입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성경봉독이 진행되는 짧은 시간에 150명의 찬양대원과 심 여명의 관현악단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뉴욕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강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사도행전 19장 1~7절을본문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연합찬양대는 예배가 끝나는 늦은 11시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수련회 말씀 스케치

편집부

2108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뉴저지Parsippany SHERATON HOTEL에서 7.2(월)부터 3일간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수련회 장소로 인해 이동과 예배당 세팅 등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시간을 앞두고 설렘에 부풀었다. 특히 서부를 대표하는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백정우 담임 목사님의 초빙 설교 말씀은 수련회 참가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충만함을 주셨고, 권장의 자랑인 두드림, 주빌리, 주향, 그레이스, 블레싱, 킹스夸이어, 글로리아, 장로 일동, 교역자 일동의 특별찬양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은혜의 순서였다. 자유시간 중간에 운영된 다양한 친교프로그램과 마지막 날에 있었던 권장 찬양축제는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로 만들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풍성하였다.

7.2(월) 개회예배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요4:3-10)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두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리고 그 여인의 변화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 하여야 하는지라(요4:4)”라고 말씀하신다. 비참한 한 여인의 고단함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하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심이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요4:6)”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의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달려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완벽한 배려를 위해서 제자 모두에게 음식을 사오라 동네로 보내신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와 타이밍과 배려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일으킨다. 먼저는 관계의 전환, 두번째 물을 주는 주도권의 전환,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의 전환이 일어난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 칭하기를 “당신(요4:9)”이라 하지만, “주여(요4:10)”, 그리고 당시 최고의 신앙 고백인 “선지자(요4:19)”라고 부르며 예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화되고 신자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된다. 바울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긴장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한다. 두번째, 물을 주는 주도권의 전환은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후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한다. 물은 여인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여인의 고단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목적이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를 정죄했던 사람들에



중국어 예배부 청년들의 바디워십

게로 들어간다.(요 4:28)”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요4:29-30)” 리더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만남으로 변화된 모습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다.

7.2(월) 저녁예배

요나를 통해 나를 봅니다(욘1:1-3)

나를 향한 여호와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루를 살면 낭비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반드시 이 소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다. 그 이유는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욘1:2)이었다. 니느웨의 악독, 선교는 약한자들을 구제하는 구호활동이 아니라 악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북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로 보내신 감추어진 이유는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복하여 돌아오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고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한다. 요나의 불순종을 보며 믿지 않는 이방인 배 선장까지 요나에게 일어나 구하라(외치라)고 한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을 향해 외치는 책망과 같다.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행실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고, 악한 행실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다고 한다(마12:35).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 욕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매일매일 있지 않고 일년에 한두번 있는데 마침 배를 만나게 된 것은 요나에게 저주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행동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지,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다. 예배의 감격, 기도



7.3(화) 새벽예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삶(욘1:4-10)

삶의 무게중심에 나의 소원이 있으면 미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으면 신앙이 된다. 또한 나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맞추어 가면 기복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키려 할 때 기복 신앙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나의 의지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는 착각이다. 마지막 날 주님께 내가 권능과 선행을 행했다고 하여도 정작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마 7:21-22)” 하실 수 있다. 즉, 나의 뜻대로 권능과 선행을 행했다면 안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도 실은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령충만을 구했다면 나중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으나 요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돌이키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반면,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자기 뜻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나는 다시스로 간다.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맞게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불순종을 내버려 두고 죄에 대해 아무런 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거의 깨어진 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Revive의 의미가 된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 잠자지 않고 세상에 찌맛을 드러내어 복을 얻으라 하시지만 요나는 문제 앞에서 잠자고 있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의 두 분류의 질문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자(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한 자신이 지금까지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 풍랑을 멈추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잠잠해진 바다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고 그의 목숨을 구하신다. 그리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즉, 그 어려운 곳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revive의 현상이 되었다.

7.3(화) 저녁예배

하나님의 숨은 뜻(욘 3:1-10)

우리가 무엇을 영터리로 행하였음에도 주위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믿음이 좋네요, 참 수고가 많았어요”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잠깐의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은 알고 있다. 내가 진실로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영터리로 하는지 자신은 잘 알고 있다. 언젠가 그날은 오고야 마는데 그날에 밝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 때에 창피할 수 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은 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잘하기 보다는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남들의 인정보다 바르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빛나가는 요나. 죄는 과녁을 빛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맞고 물고기 배속으로 까지 들어가게 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욘2:7)” 요나는 물고기 배속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를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요나에게 임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 이어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욘3:1)”. 두번째 의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쓰신다. 82세의 갈렙, 40대가 아닌 80세의 모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거대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거룩함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배속에서 나온 요나는 두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만을 외칠 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 니느웨를 하루동안만 걸으며 온전하지 못한 사명자의 행동을



강사목사님들을 축복하는 권장성도들

한다. 그럼에도 니스웨 사람들은 초라한 요나의 무성익한 외침을 듣고 금식하며 굶은 배웃을 입으며 회개한다. 하나님의 그늘이 행한 것 곧 그 악한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니스웨가 재앙을 피한 것은 요나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은혜인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어 예배부 특별찬양



7.4(수) 새벽 예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은 4:1-11)

세상은 현재가 얼마나 높고 잘사느냐를 따진다면 신앙은 지금은 초라하고 과정이 꺼칠해도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해야 끝이 아름다울 수 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유능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고 믿는 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니스웨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았다(은 4:1). 요나서 1장은 도망자 요나, 2장은 실패자 요나, 3장은 사명자 요나, 4장은 반항아 요나를 보게 된다. 참 한심해 보이는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흠먼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모함과 은혜를 구하지 않기도 한다. 요나가 반항자가 된 것은 은 4:2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속성(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혜가 크신 분)임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한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갈2:20), not I but Christ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신약의 순서를 보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4복음서)가 먼저이고 그리고 교회(사도행전)이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이다. 우리가 요즘에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요나는 죽기를 서원한다(은4:3). 이 때 하나님은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신다. 이렇게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해 나는 분이다.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니스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은4:5).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져 주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다가(은4:6) 박넝

쿨이 시들어 없어지고 힘들어지자 죽기를 원한다(은4:8). 이렇게 요나의 본심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 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니스웨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니스웨가 돌이킨 것에 대한 기쁨이 요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은4:10-11).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

7.4(수) 낮 예배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왕하 2:8-12)

대안 없는 이 시대에 대안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하2장을 보고자 한다. 엘리야의 코 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가 다가오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 가시기 위해 그를 요단으로 보내고자 하니,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를 길갈에 두고자 하니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 가기를 청한다(왕하2:1-7).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다(왕하2:8).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성령을 요구한다(왕하2:9). 왜 갑절만 요구했을까? 성경에서 갑절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의 속도와 같은 갑절의 능력을 주셨고(렘12:5) 또한 다니엘 선지자 예언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회복 될 때에 그 징조로 갑절의 소출을 얻어 만민들에게 칭송 받을 것이라 한다(사61:7-9).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산물이다. 이 같은 능력을 가진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이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자신을 위해 사용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결국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된다. 그가 50년의 선지자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 할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르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왕하3:14)”라고 같은 고백을 한다. 우리도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받았으니, 이 땅의 마병과 병거로 살아갑시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

부르짖음



2018 中文堂的退修会行程

一个使命教会、使命人生

-刘晓敏姐妹

7/2 号我们中午到达营地放下行李在注册的地方后就进入会议室开始了开幕礼。我们以敬拜开始，一起用歌声来赞美我们的主，也预备我们的心来聆听信息。我们的讲员是陈家荣牧师，开幕礼的时候他讲述了使命教会，使命人生，鼓励我们每个基督徒要用使命的心和行动。

在年轻的时候就要来服侍主。陈家荣牧师的讲道总是很风趣幽默，两个小时的讲道总是感觉飞一样的过去了。讲道结束后我们分成了12个小组坐在一起分享主的话语，分享牧师的讲道如何触碰到我们的心灵。之后我们有半个小时的休息然后晚餐，晚餐之后我们开始了第二堂信息“合一的教会” 牧师教导着我们要记得我们得救本乎恩，不是出于自己。 让一切旧事已过都变成新的，鼓励我们接受彼此的不同。在讲道结束的时候牧师让我们动起来彼此拥抱，让一切都成过去，彼此接纳。 讲道结束我们一起祷告，为韩文堂，中文堂，教育部祷告。求神使这次的聚会让每个人都能大大的被神的着。跟着我们有夜宵，有些弟兄姐妹会继续彼此分享，有些弟兄姐妹就回了寝室休息。

第二天，我们早起个人灵修完，然后去礼堂参加早祷告会，参加完了早祷告会后，我们一起早操，跟着早餐然后就去了礼堂参加第三堂讲道“传扬神旨意和奥秘的教会”。 牧师说传扬福音是我们每个基督徒不能推卸的责任。基督徒必须传福音。聚会结束我们依然是分小组一起分享神的话语。 跟着一起午餐相交，午餐之后我们拥有自由时间，有些弟兄姐妹去了动物园，有些弟兄姐妹去了游泳，健身，散步，聊天。大家享受自由时间，非常愉快。 我们享用完晚餐之后，我们立刻参加了第四堂聚会“装备圣徒的教会”。 明白教会是基督身体的实际，要成为一间装备圣徒的教会。信息之后我们有特别的葫芦丝表演和特别的感恩奉献为到在非洲的事功，跟着我们一起祷告守望，休息。

最后一天，我们起床灵修后参加体操，早餐， 跟着第五堂信息“面对属灵争战的教会”。 我们必须多方祷告，装备属灵军装来面对属灵争战。信息之后我们和韩文堂一起闭幕礼。 然后午餐我们一起离开。感谢赞美我们的主耶稣基督，一切荣耀都归给我们的主!



2018 중국어예배부 수련회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인생

-Liu,xiaomin 자매

7/2일 점심에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로 오신 천자롱목사님께서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인생' 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셨습니다.

천자롱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유머로 가득차서 두시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설교 후 12그룹으로 나누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식사 후 '하나가 되는 교회' 라는 주제로 두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 받았던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다른 모습까지 받아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 서로를 포용하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국어부, 중국어부, 교육부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개인 영성시간을 갖고 함께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비밀' 라는 주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면 반드시 행해야 할 책임임을 강조하셨다. 예배후 그룹으로 나누어 교제하였고 점심식사와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기 동물원, 수영장, 헬스장, 산책, 교제의 시간을 갖는 등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성도의 교회는 무장해야 한다' 라는 네번째 설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이고, 성도의 교회는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 순서와 아프리카 사역을 위한 특별 감사헌금 시간을 가지고 중보기도로 저녁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은 '영적전쟁에 직면하는 교회' 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영적군사로서 준비함으로 영적 전쟁을 직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한국어부와 함께 폐회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중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단기선교팀



感谢主，今年带领十位弟兄姐妹参加中国短宣。上帝带领我们开展了五个事工：牧者培训、儿童夏令营、美甲培训、泡菜制作与教会探访。

7月10日凌晨一下飞机，当天就开始了一系列的事工。在下午的开幕礼结束后，我与张弟兄就离开，去到牧者培训的场所，开始了为期四天的培训。每天早晨七点钟的晨更，诗歌的赞美，话语的分享，同心的祷告，让每一天的培训都有一个美好的开始。每日早午晚三篇约书亚记的信息，帮助同工们在生命与牧会的困难与挑战中重拾信心与盼望。其中也有牧者的分组讨论与交通，各自从信息里面连接到自己的生命属灵光景与牧会的情况，一同的交通、代祷、支持、安慰与鼓励。在这四天三夜里，牧者同工们在圣灵与神的话语里得到激励，重拾信心与盼望回到工场，继续他们的牧养工作。愿主大大地赐福与祂仆人使女们的辛劳工作，使神家兴旺、信徒复兴、自己蒙福。他们大部分都是带着物资、经济的缺乏来事奉主的，愿主供应祂仆人使女们一切的需用，家庭妻儿日用的饮食。



开幕礼证道개막식 예배

与此同时，同样四日的儿童夏令营也同步进行了。由四位青年弟兄姐妹组合的队伍负责教导带领三十多位来自不同教会的孩童与青少年学习真理、英语、诗歌等。这些孩子在游戏中，学习里与老师们的关系日渐亲密。当中，他们还有一日户外郊游，在主的恩典中，他们一同渡过了美好的时光。

在这期间，我们中间的其他队员负责美甲事工，由我们韩文堂的Sim劝事带领，教导来自不同教会的姐妹如何作美甲，培训她们有一技之长，将来在社会里有更好的工作机会。

在第四日结束时，教牧培训的牧者、儿童夏令营的孩子与美甲班的姐妹们全聚一堂，开始我们的闭幕礼。当中有儿童献唱，教师献唱，还有我们短宣队的献唱，有神话语的分享，也有各事工中参加成员的感受分享。感谢主，平安顺利地带领我们结束了三个事工。接着我们就开始了第四个事工，泡菜。由黄海玉传道负责带领，全部队员协助，教导当地的肢体们如何制作泡菜。泡菜是个体力活，很多弟兄和姐妹都投入其中，帮助完成。之后在当地牧者的鼓励下，很多信徒都买了泡菜支持教会财政或宣教基金。还有很多泡菜送给不同的教会与牧者。



美甲培训 네일아트 교육

儿童VBS 어린이 VBS

最后，我们探访了四间教会，有城市的，也有乡村的。在当中我们都有崇拜，除了当地教会本身肢体们的诗歌赞美与诗班献唱，我们短宣队在每间教会都献唱一两首诗歌，然后我就会分享神的话语。我们与每间教会的牧者和同工都有交通分享他们教会的情况。我们也带去了弟兄姐妹和教会的奉献，支持祝福他们的事工。教牧同工与当地信徒们都非常的感恩上帝的眷顾与美国教会肢体们的爱心。感谢上帝，平安顺利地带领我们完成了2018年中国短宣的一切事工，不单止把祝福带给中国的教会，也因此我们自己教会的弟兄姐妹也在上帝面前蒙恩得福。感谢主，让祂自己的教会在各地不断地复兴起来。愿圣灵我们的保惠师不断地带领我们走向美好得胜的未来。哈利路亚！一切的荣耀、感谢与赞美都归给我们天上的父与主耶稣基督。

중국 단기 올 해는 10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중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목회자 훈련, 어린이어름 성경학교, 네일아트, 김치 만드는 것과 교회탐방 등 사역을 넓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7월 10일 새벽,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그 날부터 여러가지 사역을 시작하였다.

오후 개막식이 끝난 후, 장형제와 함께 목회자 훈련장소에 도착하여 4일간의 준비를 하였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편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동역자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다시 도전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개개인의 영적생명과 목회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3박4일 동안,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힘을 얻어 다시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계속하여 목양사역을 이어갔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집과 성도들 모두 부흥되고 그들도 축복받길 소망한다. 그들은 대부분 물질, 경제적으로 부족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한 가정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한다.

여름성경학교
동시에, 4일간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4명의 청년들이 30명 넘는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성경, 영어, 찬양등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공부, 게임을 통해 선생님과의 관계도 매일매일 돈독해졌다. 그리고 1일 야외모임도 가졌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장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네일아트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심권사님의 지도하에 여러 교회에서 온 자매들에게 네일아트를 교육하고, 사회에 나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4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목회자 훈련생들과 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친 아이들, 그리고 네일아트를 배운 자매들과 함께 폐막식을 가졌다. 아이들의 헌

신찬양과 선생님들의 헌신찬양, 단기선교팀원들의 헌신찬양이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과 참가한 사역자들의 간증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김치바자
이어서, 우리는 4번째 사역을 시작하였다. 황전도사님의 지도와 모든 팀원들의 협조로 현지 사람들에게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김치 만드는 일은 육체노동과 다름없어서 함께 이일을 감당해야만 했다. 또한 현지 목회자들의 격려하에 많은 성도들이 김치를 구입하여 교회재정과 선교헌금에 동참하였다. 판매를 마친 후에는 남아 있는 김치를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역교회 탐방
마지막 사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4개 교회를 탐방하였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현지 교인들의 헌신찬양과 찬양대찬양 그리고 단기선교팀의 헌신찬양도 한, 두곡씩 올려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었다. 또한 교회마다 목회자들과 교회의 상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성도님들과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여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미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를 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8년 중국 단기선교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중국교회가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선교팀원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더 부흥되길 소망한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

단기선교팀원들이 7월 10일 새벽,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그 날부터 여러가지 사역을 시작하였다.

선교 간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 主的爱与恩典

Lin, zhenzhen 자매 林真珍姐妹
단기선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름성경 학교에서 Candy, Zhou wen, Huang wei와 함께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온 6세-18세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날, 아이들이 일찍 도착하여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속에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4일 동안 기도, 찬양, 공부, 게임등을 하며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처음 만났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주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근저 잔디밭 튜브놀이 가 소원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었던 아이들과 야외모임을 위해 출발하는 아침, 간밤에 아이들은 기대로 흥분되어 잠을 못갔다고 합니다.



彝族教会弟兄姐妹献诗 이족교회 성도들의 헌신찬양

장마철이었지만 유난히 좋은 날씨여서 온 종일 야외모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날, 영어기초가 없던 아이들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6) 는 성경구절을 모두 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아이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년에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단기선교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 준비되어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7월 10일 새벽,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그 날부터 여러가지 사역을 시작하였다.

弟兄姐妹们，大家好。我是林真珍，很高兴能有这样的机会在这里分享这次短宣的事工。这次我主要是负责儿童事工，我们短宣队的任务是教他们英文；跟Candy，周闻，黄炜，四个人配搭带领35个左右的小朋友负责为期4天的聚会，孩子们叫之为夏令营。小朋友们都来自3个不同的昆明当地的教会，有一些是牧者同工的孩子。孩子们告诉我们这也是他们第一次这样的联合聚会。他们年龄平均在6岁到18岁之间，由于年龄差距蛮大的，所以我们把他们分为3个班级来学习。第一天，刚见面的时候，大家都很腼腆。但是他们早早的就到了，看到他们都坐着等我们，心里就一股暖暖的感觉。我就一直跟神祷告，求圣灵来引导我们一起相处的时间。通过小游戏和诗歌互动，大家渐渐熟悉起来了。在这些天里，每一天早上我们一起祷告开始，然后诗歌敬拜，学习，游戏等等。孩子们跟我们的关系越来越亲密。我们还安排了一天出去户外郊游，这也是我们第一次体验带小孩出去郊游，听当地的同工说，这些孩子很想去附近的滑草场游玩，由于家里条件有限，所以一直没有机会去。要出发的那天一早，就有一两个小朋友跑来跟我分享，他们昨晚起就激动的睡不着了，好期待今天的郊游。感谢主在昆明雨季的季节里，预备了一个大晴天给我们，我们也深深地感觉到天父爸爸很爱这些孩子们，恩待他们。短短的几天时间里，这些孩子们不停地跑来跟我们告白说：“老师，你们真的对我们太好了。”听他们这样说，我们心里也是满满的感动。感谢神这样预备我们，虽然我们第一次见面，我们不分年龄大小，因为同一个主，我们相聚在一起，合一的生活，那感觉真的太美妙了。这些小孩们也都很乖，积极学习，没几天功夫，都会用英文背出来一些经句，他们当中还有一些还是一点英文基础都没有的孩子，也会背经文了。特别是约翰福音14:6节这句耶稣说，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藉着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我发现小朋友们基本上每个都会。在他们身上，我们也学到了很多，表面上好像是在教他们，其实他们也教了我们很多，特别是我们生活在美国，各方面条件都很丰富与安逸，但跟这些孩子比，似乎我们有很多亏欠与不足，很多时候我们经常还不满足，缺乏感恩的心，甚至丢失了起初的爱心。但是我们感谢神，充分有余地预备，借着这些孩子给我们的人生上了一堂无价的功课。神让我们感受到施比受更为有福这句话的实际体验。我们能为他们做的事工非常的有限，希望明年有更多的弟兄姐妹可以被神呼召，加入我们的短宣事工，可以帮助更多的人来认识神。我们也要更好装备自己做基督的精兵，为神打那美好的圣战。

Honduras Missions trip 2018

La Mosquitia: Forgotten by People yet Remembered by God

Deacon Peter Jo - 조재호 집사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Luke 15:7)

Throughout our time in La Mosquitia, one image that was in my mind was how God was rejoicing, and how there might have been a feast in heaven over the people of La Mosquitia as they came to realize themselves as sinners, repented, and accepted Christ as their Savior.

The Preparation:

Thank you KAPCQ for so much help in toiling so much to support the summer mission teams spiritually and financially.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year, our church did a variety of fundraisings and bazaar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which made this summer missions possible.

Preparing for missions was a bit challenging as we needed to have numerous meetings to prepare us spiritually and mentally. If I remember one thing that Elder Gil Pyo Chong said, it is that we ought to go to the mission field with overflowing grace so that we may be able to share that grace.

Painting Houses for the Non-Christian Residence of La Mosquitia to Open Up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spel



Children's Worship Revival Service



For about 90 days or so we were assigned to do daily quiet times which covered much of the New Testament. It was a bit challenging to find that 30 minutes to an hour a day to reflect on God's word. Yet these chapters that were assigned really gave us the renewed perspective and reminded us of the foundation of our faith. The chapters spoke to us deeply to remind us how blessed we are because of Jesus and made us realize that faith is about how connected we are to God, and that without the proper connection with God we too may fall from grace of God.

Throughout our training the team Honduras was very good, all of us worked well as a team to build each other up and encouraged each other. Pastor Nate and 11 of us were like the 12 disciples of Jesus who functioned well throughout the preparation and throughout the ministries.

At Honduras:

Going to the mission site was a bit challenging as well: about 13-hours driving on paved road followed by about three hours driving on dirt road, and two hours of canoe-like boat ride got us there. We left at about 4 AM on Monday and arrived around 10 PM that day.

Right there and then I realized that missionary Dong Chul Lee has a real love and passion for the people of this remote village, since no would take this kind of back-breaking 18-hour trip for money or fame.



The Main Event:

Our boat arrived at La Mosquitia village in pitch darkness. As our boat pulled up to the shore, we were surprised by the village pastor, people and kids who waited for us at the shore in pitch darkness just to welcome us. This was a blessing to experience.

The village was a small village by the sea, where people live in about 40 huts that are minimally built with wood. These people seem to be living off some fishing they do out on the ocean, with no real industry but living on a day to day basis.

My heart was heavy as we sat that night to pray for the upcoming ministry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I asked God "how come these people are living like this?", it seemed like that they live in the 1700s without electricity, running water, or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Missionary Lee, it cost them about 100 USD for them to take a trip into the city for a couple of days, which is mind boggling considering that these people have no means to make money. Missionary Lee told us that the young people's sole wish is to go and live and make it in the city, but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born and live there without much hope for going to the city or for changing their lifestyle.

For the next three days we stayed there, the days were filled with the grace of God. Although we too lived without much comfort, with minor illnesses, we effectively ministered to both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of the village. The team toiled in scorching heat every day to have vacation bible school (VBS) where the children were cared for with love in God and many adults were helped with the glasses ministry as well as getting their houses painted. Through the VBS, the children were presented the gospel and at the end of the glasses /painting ministry we shared the gospel with every adult. There were many adults and children who came to realize they live a life without Christ, which is what Bible defines as sin. With the grace of God, so many of these children and adults invited Christ into their hearts to be Lord over their lives and to help them.

We only ministered to the people of La Mosquitia for three days, yet I saw hope and future in these people through what God is doing. God can raise an army from mere bones and God can move the mountains. We only planted little seed of the Gospel in these people, and through that our hope is that these people will continually seek God's face and help and have their village changed around. Our hope is that each one of the people we spoke to will become a fervent man and woman of that village and beyond.



Our Team Saying Farewell after Our Revival Service



VBS Arts & Craft Time in La Mosquitia

Kenya Missions trip 2018

복음으로 하나되어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

류기정 청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운데 12일간(7/9-7/20)의 케냐 단기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케냐에서의 사역은 크게 두 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케냐 현지 교회 목회자 세미나 사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록(Narok)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VBS사역이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는 나록 지역의 Light Christian Fellowship-Osinoni 교회에서 3일 동안 52명의 나록 지역 및 주변지역 교회 목사님과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 세미나 기간 동안, 현지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 분들의 눈빛과 강의에 임하는 태도를 통해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Crusade 위주로 신앙 경험을 해 온 그 곳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를 세우고, 또 세워진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들이 케냐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목회자 세미나 (장소: 나록 지역의Light Christian Fellowship-Osinoni 교회)

VBS사역은 나록지역 학교들, 교회, 고아원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찬양,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 짧은 연극들, 성경 말씀 인형극, 색칠하기, 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그 곳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7일간의 VBS사역동안 약2000여명의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곳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찬양했던 기쁨은 여전히 저희 팀원 각 마음 가운데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사역기간 중 하루는 VBS 오전과 오후 사역을 마치고, 현지교회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동안 저희 팀원들 모두 그들과 하나되어 함께 춤추고 찬양



세미나 마지막 날 현지 목회자 및 리더들과 함께 찍은 전체 사진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언어, 피부색, 춤, 음악도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열방과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날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기선교 기간동안 김도현 목사님 외 7명의 저희 팀원 모두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팀원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팀원 연령대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집사님 부부 및 권사님까지 매우 다양했지만, 연령대와 상관없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겼던 그 시간들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자로서, 단기선교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단기선교 기간 동안 부족한 우리를 들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VBS사역 (현지 학교 방문) - 학생들과 함께 찬양 하는 모습



현지교회 청년들이 하는 금요 전도집회에 참석하여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QBC 여름 특강 | 신약 통독 Guide

하나님 나라



6월달에 2번째 학기를 마친 QBC 는 7월 8일 주일 지하친교실에서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신약 통독 Guide' 라는 주제로 여름 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약 각 권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성경인물들을 살피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로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찾아가는 QBC 여름 특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번째 강의 |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신약을 여는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막1:14-15)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시작되었고 종말적으로 완성될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구조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already but not yet)구조이다. (마12:28, 눅22:18)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임을 구약은 이미 예언하였다. (눅3:4-5)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삶, 수난, 죽음, 부활 등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모습과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신다. (마13:44, 막10:15, 눅9:2)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온 이야기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된 백성은 어떤 자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믿음으로 생명(영생)을 받은 자임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 (요1:11, 3:3, 5:24) 사도행전은 예수님에게도 빌립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서에는 교회의 설립이 나타나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까지 환난을 견디며, 예수님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행1:3, 8:12, 14:22, 28:30, 28:31)

두번째 강의 |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우리는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까지 공부하기로 한다. 로마서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다. (롬14:17)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의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롬3:10)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다. (롬1:7) 하나님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참고 : (마25:21) 로마서는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한다. 성도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함을 로마서는 일깨운다. (롬9:25), 참고 : (마6:10)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 대신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번듯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임을 알려준다. (고전4:20)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앎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라이다. (고전13:12-13).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비록 현실에 잠시 살고 있으나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고후4:17-18, 5:1-2) 또한 고린도후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갖는다. (고후 5:17-18)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악한 세대 건짐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성품을 보이는 자라고 한다. (갈 1:4, 5:1a, 5:22-23)

세번째 강의 |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의 삶

에베소서에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나라로 말한다. (엡2:5-6)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엡1:18-19)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다. (엡 4:22-23, 엡5:1, 엡5:4-5)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은 가정, 교회,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보여 져야 한다. 에베소서에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빌립보서는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빌 3:20-21) 이 땅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가능하다. (빌 1:20-21)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높아지신 그리스도이시다. (빌 2:6-11)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여 왕을 부르라. 왕을 찬양하라.(참조 : 민 23:21b, 행 16:25)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진 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골 1:13) 하나님의 백성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골 3:1-4)

아하~ 예수님!



Food Island 모두가 함께 섬긴 VBS



영아부 윤지영 권사

2018 VBS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아부는 토요일 하루만 VBS 를 하였지만 3일간의 VBS 를 진행하는 윗부서를 섬기는 마음으로 Food Island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 하시고 보내주신 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첫날 약간의 착오(음식의 양)가 있긴 했지만 둘째날부터는 아이들과 Volunteer들, 교사들이 각팀대로 순조롭게 넉넉히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먹는 모습, 아이들을 챙기시는 선생님들과 Volunteer들의 모습에서 모두 함께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가 고리금식기도와 봉사, 물질의 섬김까지 모두가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VBS 를 한다고 하였을 때에 “영아부 VBS ? 아가들이 뭘 해?”하는듯한 학부모님들의모습이있었으나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권유로 많은 영아들이 참석하였고 말씀과 게임 craft 시간을 통하여 아가 눈높이의 놀이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들도 아가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듯 밝은 미소와 표정들로 보낸 시간시간과 말씀의 은혜에 함께 모두가 하나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일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Praise & Memory Verse Million Reasons to Rejoice



유년부 배윤영 집사

지난 달 말, 초등학교 두 자녀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우여 곡절 끝에 찬양 인도를 부탁받아, vbs주제에 맞춘 노래로 울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인지라 서툴고, 모르는 노래에 어색한 동작, 다방면에 실수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앞에 세우시고 모든 필요한 도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것은 예배자가 갖춰야할 본질이라는 점, 누구나 수긍하시겠지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찬양할 때 울동은 왜 특히 더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워낙 몸치인지라 아이들이 영아부일때부터 울동은 마지 못해 따라하곤 했던 저는, 최근 유년부를 섬기면서 왜 울동이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아,저학년 학생들에게 예배나 수업 시간에 앉전히 앉아 100% 참여하라는 건 참 어려운 요구 사항입니다. 누군가 얘기했듯, 활동량 많은 서너살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너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가 되어 주의집중장애아를 기르다 보니, 단순한 “하지만” 보다는 “대신 이걸 하면 어때?” 가 훨씬 더 효과적이더군요. 울동은 가만히 앉아 있기에 종이 쑤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그 후 차분히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 준비 과정 동안 저의 목표는 단순히, ‘아이들이 예배 동안 안전해지도록 도와주자.’였습니다. 좋은 노래, 재미있는 울동으로 즐겁게 해주고 운동시키면 아무래도 덜 산만해 하겠지,하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드리기 위한 준비보다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준비에 더 공을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화면과 음악은 청년부 김아람 선생님이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주신 덕에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소품도 QPEM에 때맞춰 기적같이 마련되어 빌려 쓸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시는 권사님들과 청년들, 그리고 하랑 예찬 아이들 덕분에 그런대로 울동도 준비가 되었고 매일 아침 방송부 집사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많았음에도, 저는 나름 긴장했던 터라 처음 이들은 마치 직업처럼, 의무감에 올라서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으로 무장된 저를 아이들을 통해 또 한번 깨우치시고 감동시켰습니다. 마지막날 마무리 찬양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노래로 아이들에게 앞에 나와 참여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인 어린 아이들까지 서슴없이 나와 깡총깡총 같이 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인도를 돕는 어린 중고등학생 리더들이 열심히 목청껏 성원해주는 모습. 친교실을 꽉 채운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참여열기에 맨 뒤에서도 같이 깡총깡총 뛰어드시는 집사님,권사님들. 신나는 음악, 맑은 눈망울, 환한 미소... 애어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다같이 너무나 즐겁더군요. 다윗 왕이 주안에서 진실로 기뻐 춤추었던 것처럼, 그 순간 친교실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권위나 형식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다같이 즐거워 했습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보다, 진심으로 즐거워 나와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즐거움으로 준비하지 않는 제사를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노력을 통해 뭐든지 얻어야 한다는 한국 사람의 근면성 덕분인지, 우리는 안식일에도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결하려 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중, 저는 아무래도 마르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막상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존재에만 의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헤아려 본 기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의 노고도 인정하셨지만,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선 순위를 바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올 여름을 통해 다시 한번, 분주함보다는 주님과 친교에 더 공을 드리고 그 안에서 진실로 기뻐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줄 압니다만, 제가 예상 외로 많이 배우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며 설명하다 보니 제가 구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원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해요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니, 그 사실 자체를 목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려 합니다.

Bible Island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말씀의 은혜



유년부 이금숙 집사

Bible Island를 준비하며 전도사님의 말씀 지도, 여러 부서 선생님들과의 공부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말씀 내용은 ‘When you struggle, Jesus rescues! When you do wrong, Jesus rescues! When you’re powerless, Jesus rescues!’ 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잘못할 때, 무력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여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적용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When you do wrong, Jesus rescues! 우리가 잘못할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우며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죄의 모습과 두 갈래의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쪽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을 받지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깨끗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자기의 죄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사는 겁니다. 비디오로 십자가의 두 강도에 대한 성경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질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곧이어 아이들에게 냄새나고 더러운 천(filthy rags)을 하나씩 갖게 하였습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이것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천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은 자와 똑같이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앞에서는 죄인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었을때 “네”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만지기도 싫어하던 냄새나고 더러운 천(Filthy rags)은 아이들의 손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가져가시고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아이들의 손에는 새롭고 향기나는 깨끗한 천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깨끗한 천과 같이 아름답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나누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천을 움켜쥐며 자기는 제



말씀 전해주시는 Joshua Ro 전도사님과 귀 쫓긋 우리 친구들

속 갖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림을 통해 설명했던 죄의모습과 두 갈래의 길을 다시 반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기도하며 기다릴때에, 그 아이는 자기도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는 더럽고 냄새나는 천을 가져가도록 허락하며 깨끗하고 좋은 향이 나는 예쁜 천을 만지고 부비면서 금세 기뻐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Memory Verse Song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때에 은혜가 충만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VBS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VBS Deco 도우시는 하나님!



유아부 박경미 집사

처음 VBS 데코레이션을 유아부에서 맡게 되었다고 들었을때 순간 내가 이 많은 데코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고 나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유아부 데코를 담당했던 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걱정을 하고 있을때 하나님께서는 VBS 데코를 함께 할수 있는 분들을 주셨고 가장 고민했던 공간의 데코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고민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또한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했을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시편119:19)” 이번 VBS 주제 성구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기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VBS를 통해 난파선에서 구조 받는 비유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 인도자는 예수님 한분 뿐임을 알고 상처와 아픔, 깨어짐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만든 제 작품 좀 보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영아들의 아하! 예수님

Volunteer Training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수 있다.



유치부 이소영 전도사

‘나비효과’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을 맡은 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VBS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흥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목사님께서 각 교육부서 지도자들에게 여름성경학교를 해 봄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실때, 저 역시 흥쾌히 하겠노라 답하였는데, 그때부터 저의 약하고 가늘한 날개짓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연단의 시작인 것이지요.^^ 수개월 전부터 미팅과 기도로 준비하며 각 부서마다 주어진 미션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였고 교사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중,고등부 발렌티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저로써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반문에 반문을 더하는 기도가 저절로 울려졌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시고 공활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음에 응답하사 돕는 자를 예비하여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감사합니다,하나님!”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작해야하는데 중,고등부 학생 40명이 필요한 가운데 25명이 자원하였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자리에서 이를 위해 기도하였고, VBS를 한주 남겨놓고 집사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타 교회에 다니시는 분까지 자원하여서 필요한 숫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당일에 빠지는 발렌티어가 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정확히 그 자리를 매꿔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생각하니 작은 날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귀한 발렌티어들과 2박3일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저 스쳐가며 아는 아이들, 혹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넘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이 친구들도 아이들에 불과한데 중학교 아이들이 몇살 아래인 초등부를 섬기는 일은 그리 쉽지않았을 텐데도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행복과 웃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한 이유와 목표는 단 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

해 각자에게 주어진 날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날개가 크던 작던, 큰 바람을 일으키던, 겨우 먼지만 일으키는 작은 바람일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날개짓을 하며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언제인지 모를 하나님의 때에 큰 태풍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된 VBS 였습니다.

Joy in The Lord



유치부 안미영 집사

Thanks to the prayers of all our teachers an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2018 VBS moved on smoothly and successfully. This year, 유치부 was in charge of the Game Island (indoor and outdoor). At first, it was a little challenging; the games had to fit all different age groups from 유치부 to 초등부, the weather was scorching, and the teachers and the volunteers who came to serve were not yet acquainted. However, despite the arduousness, our mutual goal of sharing joy in the Lord united us all together quickly.

From day one to day three, a variety of games were designed by 유치부, such as relay game, union ring hunting, water slides, bible memorizing, etc. I never knew “union ring hunting” could be that popular! I can still see the bright smiling faces of the children front of me. Not surprisingly, the water slides were the highlight. We also had a few new kids who joined us at the water slides, and they participated in all the rest of VBS activities well till the end. Meanwhile, for the teachers,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m to get to know their students and each other better.

While the fun we had was important, we also made sure no one forgot about the theme of this VBS. We had every group lined up by the end of the game and shouting,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Jesus is God” (Psalm 46:10). Kids were learning God’s words while they were playing. Bible verse memorization was added in relay game. In addition, the Game Island helped the children forget about their busy daily lives for a little while. I understand that even kids suffer their own daily stress, whether from school learning, or personal relationship. In terms of relaxing and de-stressing, I believe the Game Island is especially essential for our kids.

After the VBS, I asked my daughter, “How was the Game Island?” She told me it was the best moment ever! Yes, that’s right! Joy is one of the best feelings we can experience, and we can only find authentic joy in the Lord. As time goes by and as kids grow up, I hope this joy will always accompany them, and that they can go through all the difficulties.

Movie Island and Art & Creft 영화와 공작을 통한 메세지



초등부 김재형 목사

이번에 초등부가 맡은 부분은 무비 아일랜드와 아트 앤 크래프트 아일랜드였습니다. 무비 아일랜드는 말 그대로 영화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비 아일랜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첫번째로 좋은 영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여러군데 살펴보고, 요나, 노아,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폭풍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아이들이 영화를 보며 얻는게 있어야 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고, 또 주제 찬양 성경구절 암송찬양을 몇번씩 틀어 주어서 울동과 함께 부르며 말씀과 암송찬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다시 한 번 배운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비아일랜드와 아트 앤 크래프트를 진행하는 동안 잘 참여하며 영화 보는 내내 성경속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잘 집중하여서 살펴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감사하였습니다.

아트앤 크래프트 아일랜드는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무비 아일랜드 다음 순서이기에 무비 아일랜드와 주제를 일치하여서 요나, 노아, 그리고 바울이 폭풍우를 만났던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는 공작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공작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묵묵히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진행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제1회 G2G 찬양 발표회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정훈 집사

G2G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시는, 지난 2015년 초 출범한 퀸즈장로교회 어린이선교합창단의 공식 명칭입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철저한 무에서 시작된 G2G 또한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하여 단원들을 선발 하였으나, 세상의 어느 합창단과는 달리 오로지 단원들의 실력에만 기초하여 선발할 수는 없는, 항상 사랑과 배려가 동반되어야 하는 선발시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느 어린이 합창단에도 실력면에서 뒤지지 않을 단원들로 성장시켜야 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과 욕심(?) 사이에서 오는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 등등 지난 3년 반의 G2G 역사를 돌아보면 남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하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교사들의 도움과 헌신의 손길들을 통해 거름주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눈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또 다른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내딛게 하시니, 결국 뿌린 분도 하나님이지요,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합창단에 뒤지지 않을 실력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눈물이 함께 하는 감동의 찬양'을 드리는 G2G를 통해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감동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합창단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지레짐작했던 몇몇 친구들이 찬양을 통해 변화되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감동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기본중의 기본을 지난 3년여간의 G2G의 출범과 성장을 보며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G2G는 또 다른 한 단계의 도약에 나섭니다. 많은 주축 단원들의 중등부로 진학하며 G2G를 졸업하고, 새롭게 어린 친구들이 합류하며 언니,오빠들이 걸어온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단원들을 바꾸지만 그들이 걸어갈 길은 전과 같듯이, 이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 드러지는 찬양을 기뻐하실 하나님의 뿌리심과 거두심도 같을 것입니다. G2G...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미라티를 집사

지난 7월 14일, 제 1회 G2G 찬양발표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G2G는 지난 2015년에 시작하여 여러차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었지만 단독으로는 “첫” 발표회였습니다.

발표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연습한 G2G단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해 주는 학부모간증은 그날 오신 모든 회중과 부모님을 가슴에 깊은 감동이 되었고 찬양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회를 통하여 G2G아이들이 더욱 더 영적인 성장을 하며, 재능을 살려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전도하여 삶에 선교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헌신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G2G는 K~7학년 까지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중등부 G2G도 시작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1회 발표회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the Lord

심예담



Hello I am Anna a graduate of G2G this year. It is a pleasure to inform you guys how thankful G2G is because God is helping us make the first concert happen. Without God's help we could have not made it. For God loves us and our singing he made it happen. All of G2G is very thankful and happy because of God.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God is always there to help us through our troubles no matter where we are. He helped staffs,people who play the instruments, teachers, and instructors. Thank you God!

All for God's Glory

이유리



Hello, my name is Christiana Lee. During my life, I have always loved to praise and learn more about God and I have done this through G2G. Being a member of G2G has increased my happiness and confidence in praising God. I also want to let people know about Jesu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so that they may go to heaven. By God's grace, I have been able to successfully perform in the G2G concert. While performing, I felt joyful knowing that I was using myself to bring other people to God's kingdom and using my love for God to grow other people's faith for Him.

Joyful in G2G

조아라



My name is Arah Grace Cho. I had a great time while doing G2G. I got to praise and worship God with my friends. At first I was nervous to meet new friends but I made a lot of friends, G2G helped me be passionate with singing to God. G2G always made me feel very happy and excited. This program made me better at singing, helped me know more about God, and got me closer to God. I always felt joyful in G2G. My favorite song that we sang was I'm a Worshiper. This song always reminds me of how much we should love God.

God is always with me

강이울



The church I went since I was a baby. I loved praising and worshiping so I joined G2G. After praising Jesus with honesty, I know he is not far away but

always with me. I know he is always with me and I know he loves me. This (G2G official show) I loved preparing for it and I couldn't think of anything. Just praising Jesus made me happy. This chance to get all that grace and experience so I thank G2G I thank the whole choir. I pray for us to be always with Jesus, Amen.

Glory to God

조영민



I had fun at the Glory to God concert because I was praising the Lord. Also it was exciting because I got to sing a lot to God and it makes me very happy when I am singing. I love God because he protects me and he loves me for me. Thank you God, I love you!

The scented flower of Jesus

민유나



Hello, my name is Kristine Yuna Min. My name means that I am a scented flower of Jesus. I joined G2G because I like to sing and I want to be a flower that expresses the scent of Jesus through praise. Almost all Sundays the G2G practice is kind of tiring but I went. Because I want to practice and learn more about Him. It made me become one of the disciples of Jesus. In the concert, I felt happy, excited, nervous, and so tired but we did it. My favorite song from G2G is "I am a worshiper." Because this song shows that we are a worshiper's of Jesus.





Deep relationship with God

고등부 | Annabelle Choi



2018 summer retreat is definitely one of the most memorable retreat I've ever been to. Guest speaker, pastor Samuel Lee, helped me to understand Christ by preaching through real life situations. He also helped me grasp the fact that Christ has already saved me and that I need to repent my sins and return to him. Pastor Lee preached that God had already given his kingdom key to us and now it's up to us if we will use the key. This retreat helped me clear up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God and deepen my relationship with Him. Not only have I deepen my relationship with God, I have also deepen my relationship with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Pastor Samuel Lee told us that we should not keep any secret about yourself to our own selves because it distracts us. Instead, he wanted us to tell our secrets to those we trust. The time at retreat when I confessed my secrets really impacted me, I realized that I've been fighting a battle within myself and didn't have any courage to share with others all the things I've been struggling with. Every detail about the secret I was revealing, I felt huge amount of weight lifted off my shoulders. Once my group and I finished telling everyone our secrets we've definitely became closer. I now know all the struggles my friends have been through, my group reminded each other that God would always be there with us even through our dark times. Another time during retreat that stood out to me was when everyone broke into their small groups for the first time and had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mselves. Although I didn't feel comfortable in the beginning answering the questions to

my group since there weren't many people that I knew well, but by the end I definitely became more comfortable as time passed, learned many things about my group members, and each time my small group met we gradually got closer to each other. This retreat went beyond my expectations, I've learned a lot more about God, and will continue to seeking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Holy Spirit

고등부 | Paul Choi



Hello, my name is Paul Choi. I really enjoyed this year's summer retreat at the Sheraton hotel in Parsippany New Jersey. I was truly blessed by pastor Samuel Lee's sermons. The Senior High staff was just so loving and selfless and just to think that they will always have your back is just such a privilege. The praise team was so good and the music brought everyone together as one family. As the praise went on I felt that the congregation including and I were touched by the holy spirit. I have learned so many things from this retreat, some of them being that God is not a condemning God but a God who is for the world and wants to see people set free. Pastor Samuel said that the Lord says I am going to adopt you and that I choose to love you. With that message, I just broke down in front of the Lord and thanked him. A Bible verse from a morning devotional really changed my perspective on my Christian ideas.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Galatians 2:16. This retreat was one of the best I have ever been to

CDB Retreat 2018 The Ten Commandments



초등부 | Sung Gook Yang

With the grace of our Father and his undeniable blessings, the 2018 CDB Summer Retreat commenced nice and early on Monday July 2nd. The theme for this year's retreat was "The Ten Commandments" where the focus was on God's law but also His love for His people, His Faithfulness, and His command to love our neighbors. We were blessed to have Pastor Amy Lee provide us with her knowledge and insight into the word and how our kids can implement this into their daily lives. It was truly a blessing just to see all of our children taking notes and being fully engaged throughout her sermons.

The kids enjoyed a plethora of activities, mainly indoors due to the scorch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creating a picture holder (arts and crafts) to scavenger hunts and other fun games. As each group was also required to do a skit, we had spent more time on preparing for this than expected (mostly at the request of the kids wanting to do their best). As we came to conclude our time together, we could see how eager our kids were to learn more about God and how blessed they were to be there.

Despite the minor challenges we encountered during the retreat, we could really see how God provides solutions and resolves any issu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God is great, but we are also extremely grateful for the prayers leading up to and throughout the retreat, our CDB pastor and director, and especially the staff who truly love and support this ministry.



Jesus is God

유치부 | 계연란 권사



VBS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이어진 전교인 수련회에서는 유아, 유치부와 함께 vbs에서 진행되었던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아, 유치, 유얼부, 유년부와 함께 사진촬영후 Photo frame을 만들고 Name tag을 만들고 face painting과 Balloon play time을 즐긴 후에 각부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예년보다는 적은수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송과 찬양시간에는 vbs를 통해 배웠던 찬양에 익숙해진듯 열심히 즐겁게 찬양을 하며 두분의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다리"하고 회개기도하는 모습에 어린이들을 통해 그 예배 모습을 보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Outdoor 게임시간에는 유아 유치 유얼부와 함께 릴레이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버블게임시간은 마이크로 된 버블을 손에 쥐어 주며 이호텔에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다~ 우리 Jesus loves me this I know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믿으라고 찬양하자고 했을 때 큰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이 어린이들에게 주신 수련회 시간과 이 어린이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년부로 올라갈 어린이들과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올 아이들과 친밀해질 시간을 주심에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에 더 많은 어린이들과 특별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들과 부모님들이 풍족한 말씀양식을 받았어요!

영아부 | 이명옥 전도사



VBS에서 토요일 하루만 함께 한 아쉬움을 여름 수련회에서 채웠습니다. 품에 안긴 갓난 아가, 뒹뒹뒹 걸음마 아가들이 함께 한 수련회는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의 자리에 좀 더 있게 하기 위해 목사님의 설교 전까지 아가들과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만들기와 VBS에서 함께 한 찬양, 이번 주제인 'Jesus rescued'에 맞는 설교등으로 진행되었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화면이 나오는 lobby 에서 떨어지는 부모님들은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아가와 부모는 함께 모여 설교를 들으며 아가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항상 육아에 지치고 힘든 엄마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듣는 일을 쉽지 않았기에 갈급한 마음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채움 받는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죽을 간식으로 준비하여 칭얼대고 밥을 잘 먹지 않던 아가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고 엄마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자 아기를 데리고 처음 수련회에 온 엄마들에게는 새로운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중국어 유얼부 예배를 하나님께...



유얼부 | 손요한 전도사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중국어 교육부인 유얼부는 16명의 아이들과 함께 2박3일 동안, 일상을 떠나, 집을 떠나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어 교육부와 연합으로 드렸지만, 올 해는 유얼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통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어로 직접 전달되었다는 점이 아이들에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8명의 교사와 7명 부모님들의 보조로 3명씩,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어린 아이들을 섬기며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심령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알수 있도록 1강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2강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3강에서는 [성령 충만], 4강에서는 [복음 전파] 라는 제목으로 3일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보며 직접 봉사함으로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함께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수고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다는 부모님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큰 감동과 기쁨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유얼부 어린이들과 함께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어린이들

교회학교 | 고등부 졸업여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 First step that signifies new beginning

7월 7일 토요일,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여행이 있었습니다. Jaemie 선생님과 함께 브룩클린 시내로 나간 6명의 졸업생들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 곳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자란 졸업생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 소명을 찾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졸업을 축하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졸업생 모두가 건강한 대학생활을 통해 학업과 영적인 신앙의 성장으로도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졸업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It was 7/7 Saturday that the graduating seniors went on a senior trip. Along with Jaemie teacher as their guide, the 6 graduates went on a tour around Brooklyn area discovering new adventures and eating delicious food.

It was a time of celebration in recognizing the individual talents God has given and in celebrating a new beginning.

It was a bit sad that all the graduates couldn't be at this trip but we are very hopeful that everyone will grow spiritually and experience a wonderful new beginning in their walk of life. We pray for God's guidance and grace in their new beginning.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될 졸업생들

교회학교 | 졸업예배 스케치

알파와 오메가

정혜경 권사

타오르는 태양과 우거진 녹음 사이로 더욱 파랗게 보이는 하늘이 정겨운 6월 하순이 되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교회학교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난 영아부로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상급부서에 올라간다.

6월24일 주일 오후예배때 귀하고 복된 2018년 교회학교 졸업예배가드려졌다. 고등부 학생들의 힘차고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된 후 담임목사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계22:13)라는 제목으로 교회학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곧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학교이며 이 귀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나라를 위해 귀히 쓰여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다.

교육위원회의 특별찬양과 교육위원장의 학사보고 후 담임목사님께서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전해 주셨다. G2G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축복송 후에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졸업생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으며, 고등부 졸업생 권민지 학생의 감동적인 답사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모든 졸업생들이 교회학교에서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학교 | 졸업예배 답사 God raising us up as His own children.

Minji Kwon

First of all, I thank this church, KAPCQ, for being a place that has fostered so much growth spiritually, mentally, and physically for me and my peers. I sincerely thank our senior pastor, Reverend Kim Seoung Kook, for being a spiritual father and showing God's love to the church.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of the teachers, parents, and staff who selflessly serve. We wouldn't be here right now if it wasn't for all of the prayers,



졸업증 수여

love, and support they have shown us. But most importantly, I thank God for raising us up as His own children and making this all possible. Through Him, we are able to gather here to celebrate the next step of our lives. Some of us are leaving everything familiar to us for college, while others move on as they stay in this area. But wherever we are, I pray that the countless sermons, bible studies, prayers, and times of fellowship we experienced throughout these past few years were not in vain. I believe that we'll take all that we've acquired here into the greater world for God's kingdom. When we do part ways and go out into the world, it is my sincere hope that we bring glory to God in everything that we do, and live our lives as a testament of His grace. Please continue to keep us in your thoughts and prayers as each one of us begin new chapters in our lives. Once again, we thank you with all our hearts.



영아, 유아, 유치, 유얼부 졸업생 단체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졸업생 권민지입니다. 2018년도 졸업생을 대표해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퀸즈장으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교회 영아부부터 고등부를 졸업하는 오늘까지, 지난 18년동안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만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육적으로 많은 양육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를 위해 살수 있게 된 것 만으로도 분명히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졸업생 단체사진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



“**잘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칸,
내가 그 잘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성은 집사

올해 8월에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절 73주년을 맞게 된다. 근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의미깊은 8월의 광복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의 영향과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기독교 신앙의 명분으로 거부하다 순교한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의 거룩한 생애를 알림으로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킨 다큐방송, ‘일사각오 주기철’ (권혁만 PD 연출, KBS 1에서 2015년 12월 25일 밤 10시 방송)과 2016년 3월 17일에 개봉하여 9만이 넘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린 ‘일사각오’ 영화 (권혁만 감독, 이지형 주연) 를 본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925년, 이때는 일제에 의해 남산에 조선신궁이 세워졌던 때였다. 이 신궁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점령을 나타내는 정신적 상징이었고 전국에 신사가 세워져 조선인들에게는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신사(神社)’란 원래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神道)’의 제사장소로서 일본 역대 천황과 나라를 위해 순국한 군인들과 조상들의 위패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참배하는 사당을 말한다. 신사참배는 조선인들의 민족정신 말살정책과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일제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천황숭배와 내선일체(內鮮一體: 조선과 일본의 하나됨)를 강요하는 악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주기철 목사는 이런 시대에 부산의 한 달 동네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다. 1926년 1월 초량교회의 제3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것이다. 주기철 목사는 스스로 사례금을 70원에서 60원으로 깎고, 사모님이 결혼하실 때 가지고 온 땅 6천 평 가량을 조금씩 팔아서 구제에 사용했다. “오 당신이 이같이 낮어지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오리까? 나는 나를 어디까지 낮춰야 당신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것이 당시 주기철 목사의 기도였던 것이다.



마산 문창교회

이어 마산 문창교회로 자리를 옮겨 목회를 하던 주기철 목사는 평양 산정현교회의 청빙을 받아 자리를 옮긴다. 당시 평양은 일제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상황이었고 주기철 목사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엘리트 목사, 유명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었으나, 민족의 시련 앞에서 신사참배의 거센 풍랑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양

으로 간다.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평양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주기철 목사가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자 일제의 압박이 시작된다. 주기철 목사는 신앙과 민족정신의 최후의 보류였던 산정현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당시 산정현교회에는 오산학교 선생이었던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 김동원, 유계준, 오윤선 등 민족지도자들이 대거 장로 등 재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는 부임 후 첫 설교에서 신사참배 금지를 선언했다.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외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밝힌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있던 당시, 산정현교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만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결국 주기철 목사는 일본 경찰에 잡혀가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다. 주기철 목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하나님을 의미함)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고문관의 하나님에게 참배하듯이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는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조, 사랑이 신사참배를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1939년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기에 이른다. 당시 총회장에는 일본 경찰들이 짝 차 있었고, 그 위협 앞에서 마지막 보류였던 장로교회마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장로교회 임원 27명이 평양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한다. 이 소식을 주기철 목사는 옥중에서 듣는다. 일부 지도자들은 1943년 일본에까지 가서 일본 신궁에 참배한다. 그리고 1941년에는 일부 목회자들이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한강에서 일본식 침례의식 ‘미소기바라이’을 치르기도 한다.

장로교회의 신사참배 결의 후 주기철 목사는 잠시 석방되는데, 5개월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후 첫 설교에서 일본 경찰이 버젓이 예배당 안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산정현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된 ‘5 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둘째, 나의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입니다.
넷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입니다.
다섯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이 감동적 설교에 그날 산정현교회 예배당에 있던 신자들은 눈물 바다를 이루었고 일본의 앞잡이로 손가락질 받던 조선 형사들까지 눈물을 머금었다. 그리고 1939년 12월 평양노회 임시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는 파면을 당한다. 담임목사가 없는 가운데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이어나간다. 결국 1940년 3월 24일 평양 산정현교회는 강제로 폐쇄된다. 주기철 목사의 가족은 사택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져 이사를 13번이나 다니는 고초를 당한다. 주기철 목사 가족들은 먹을 음식도 없어서, 경찰들의 눈을 피해 조만식 선생 가족 등이 몰래 전해주는 쌀과 감자 등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다. 1940년 9월 20일 주기철 목사는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에 잡혀간다. 그리고 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손이 묶인 채 자신의 유언적 설교인 다음의 말씀을 전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난 무슨 낱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광복을 1년 앞두고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를 석방시켜주겠다면서 평양경찰서 지하실에 갇혀 있던 주기철 목사를 만나게 해준다. 주기철 목사는 지하실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매달려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들은 자신의 참혹한 모습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준 후 행복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의 사모인 오정모 사모는 오히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라고 말하고, 주기철 목사는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과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답한다. 일본 경찰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를 고문하고 오정모 사모까지 고문을 당한다. 일본 경찰의 말로 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에 주기철 목사는 의식을 잃고 실려 나가고 마침내 1944년 4월 21일 광복을 4개월 여 앞두고 48세의 나이로 순교한다.

“주님, 주님께서 이르신 곳에 나도 이르게 하소서”



주기철 목사와 아들 주광조



주기철 목사의 생가

다큐에서 주기철 목사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는 “이제 내 나이가 73살인데, 이제 와서 60년 전의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은 옛 추억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명예와 평안으로 바꾸지 않은 당신, 말로써 예수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써 예수 사랑을 보여주었던 당신,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당신,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저는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존경한다”고 말한다. 실제 아버지 주기철 목사의 시신을 접하게 되었을 때 보았던, 고문으로 발톱이 다 빠져 몽그리진 발이 아직도 생각난다며 눈물짓는 주광조 장로님의 울먹임이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일본인들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KBS 다큐에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가미카제 특공대 출신 무토 키요시 목사(89)는 명함을 만들었는데, 한국어로 일본의 과거를 용서해달라는 문구를 넣었다. 주기철 신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인 목사인 노데라 히로부미(53)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은 당시에 없었다. 다만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를 구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를 한국에서부터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일본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근본부터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일본인 목회자인 스미요시 에이지 목사(63)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8년 전인 2007년 도쿄의 오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70여년 전인 1943년 오이교회 원단예배(새해예배) 주보를 들고 나왔다. 스미요시 목사는 당시 주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교회가 천황에 대한 경배와 기미가요제창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린 것에 비판하는 것은 물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조선인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까지 비판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분노했고,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다. 스미요시 목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후쿠시마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다 쓰나미가 덮쳐 원전이 폭파 당하고 모두가 피난을 간 상황에서 그는 후쿠시마를 떠나 도쿄로 돌아가지 않았다. 방사능에 의한 죽음도 각오한 것이었다. 스미요시 목사는 자신이 후쿠시마의 섬을 떠나지 않은 것은,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돌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도쿄를 떠난 아버지로 인해, 당시 사춘기를 겪고 있던 아들 스미요시 겐(31)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던 그와 동생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물론 뽀뽀이 흠어져야 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그후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무엇이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를 후쿠시마로 향하게 한 것인지 신에게 묻고 싶었다. 왜 또 원전폭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아버지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은 70여 년 전 일제에 저항했던 한국인 주기철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주기철 목사에 대해 알기 위해 가족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침략의 땅 일본에서 주기철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고 그 과정이 다큐에 담겨진다.

그리고 겐은 자신보다 더 상처를 받았던 주기철 목사의 아들을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된다. 주기철 목사의 막내인, 지금은 고인인 주광조 장로는 다큐속 동영상에서 “장례식 날 저는 바깥 변소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문고리를 잠그고 혼자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어요. 하나님이다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는 바보라고,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오죽 못나서 자식들이 모양이 꼴로 만들어놓고 자기는 저렇게 죽어가느냐고 저는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했어요”라고 말한다. 스미요시 겐은 동영상 속의 자기와 처지가 같은 남성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70년 전의 주기철 목사를 만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기철목사 기념관과 주기철 목사가 문창교회 시무 시절 매일 기도한 곳이었던 무학산의 십자바위를 방문해본다.



일사각오의 한 장면
주기철 목사가 무학산 십자바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재현한 장면

주기철 목사님이 떠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은 지 70여년,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믿음의 유산이 남았다.

거대한 일제 탄압에 못 이겨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과오도 범했지만 공식 회개하였고 기독교가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 다큐와 영화를 통해 알게 되면서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였던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참여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 귀하고 귀한 한국 기독교 믿음의 유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다짐하면서...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에드워드 M. 바운스 (Edward M. Bouds, 1835-1913)



최진식 전도사

“강한 기도의 사람들은 신령한 능력의 사람들이다.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

기도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산 증거가 오늘날같이 필요한 시대도 없다. 기도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 기도 없는 마음은 결코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에드워드 M. 바운스 (Edward M. Bouds, 1835-1913)의 책입니다.

영적으로 존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는 스물 네 살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고 미주리의 작은 감리교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평생 영적인 물을 퍼 올릴 때 멈추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의 책들은 100년 동안 엄청난 도전과 전율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거룩한 부담 앞에 서있는 저에게 이 책은 늘 성경과 함께 저의 서재에 놓여 있는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제물, 최상의 제물은 기도의 제물이라는 기도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골방에서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뜨거워지게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기도의 무력중에 빠져 있다면 성도들의 가슴을 다시금 힘차게 뛰게 하고,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게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 많은 기도의 대가는 기름부음이 있는 설교이다.

기도, 많은 기도가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다.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기름부음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

인내하는 기도가 없으면, 기름부음은 때 지난 만나처럼 별레가 생긴다.” -본문 중에서-



제 12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아름다운 선율에 흐르는 사랑의 마음

편집부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폭풍우 몰아치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어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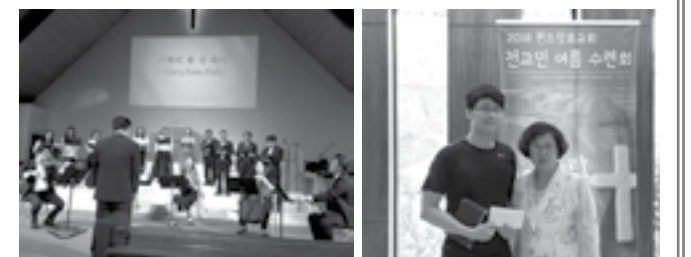
14년전에 예기치 못한 질병(암)으로 고통속에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암환자 모임인 '새생명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본교회 심의례 전도사님은 암환자들을 위한 정기 모임,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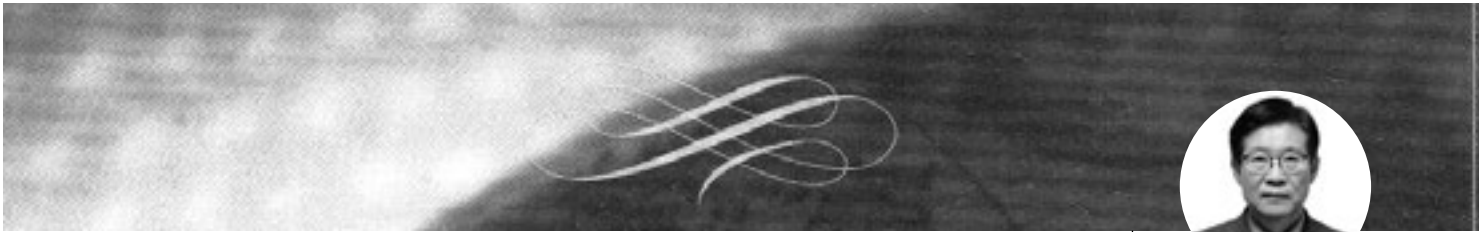
금년으로 12회를 맞이하는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6월30일(토) 7시30분에 본 교회에서 있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개회기도 후에 그 첫 순서로 본교회의 Ainos Yourh Orchestra의 연주 '다 찬양하여라' 와 '고향땅'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트럼펫(진경기),오보에(이정석),첼로(재기현),피아노(김은실)의 'Sonata in C for Trumpet, Oboe and Continuo, 아름다운 소프라노 솔로인 'Ah, Love, but a day' 와 '두려워 말라(김하얀),바리톤 솔로인 'Because Song'과 '생명의 양식'(오희평)이 연주되었다.

정인국 장로의 특연주인 '순례자의 합창'과 'I'll walk with God' 후에 암으로 부모님이 먼저 가신 자녀들(김주형/우귀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만 호목사님의 축사에 이어 오보에 독주 'Concerto for Oboe'(이정석), Sonata da Chamber Choir의 '사랑의 왕 내 목자'와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전능왕 오셔서'가 아름답게 연주된 후 이상원 목사님의 축도로 제12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모두 마쳤다.

고통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새생명선교회와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재능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모든 연주자들, 특히 아직 어린 우리 교회 Ainos Youth Orchestra 단원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미국의 법률 및 세무상식

정성호 장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사망 또는 은퇴하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 되었지만 치매와 같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미국의 법률체도가 한국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들이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서 사는 경우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산상속 계획 (Estate Planning)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재산 상속을 하기 위하여서는 상속법원 (Surrogate Court)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 유언이 있어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나 자녀 또는 종교 및 자선단체등에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Inheritance Tax) 와 증여세 (Wealth Transfer, Tax)

미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제도로 본인이 사망하면 사망자를 대신하여 Estate가 설립되며 본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사망자의 Estate에 귀속됩니다.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수증인 또는 상속인이 증여 또는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내는 세금 (Inheritance Tax)의 개념으로 수증인 또는 상속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기증인 또는 사망 시각 생전에 소유한 재산을 수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내는 세금(Wealth Transfer, Tax)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증인 또는 사망자의 Estate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세금이므로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정부에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연방세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상속과 증여를 합한 면세재산 범위는 혼자일 경우 약 천 백만불, 부부일 경우 약 이천 이백만불로 인상되었기에 대부분의 교포 가정에서는 연방상속세와 증여세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1년에 혼자일경우 \$15,000이상 부부일 경우,\$30,000 이상의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한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기증자가 여전히 증여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법은 거주하는 주와 재산이 소재한 주에 따라 다르며 또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연기(Unlimited Marital Deduction) 되지만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되면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고 또 상속세 납부연기 혜택도 없기 때문에 비시민권자인 생존 배우자 사망시 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고 또 절세를 위하여서는 특별한 신탁 (Qualified Dornestie Trust)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을 이 신탁에 이전하여 상속세 절감과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장 (Will)

유언장(Will)이 있을 경우의 유산상속 절차는 상속법원에 유언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본인의 자유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유언검증 절차 (Probate)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또 유언장에 정한 상속 재산 배분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유언장에 미리 정해 놓은 유언집행인 (Executor)이 법원으로 부터 유언집행 허가증 (Letter of Testamentary)을 받은 후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Estate 명의로 이전한 후 Estate 재산에서 상속세 및 채무등을 청산한 후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배분이 끝난 후에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하였다는 결산보고(Accounting)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유산상속 절차가 종결됩니다.

만일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법원을 통하여서 유산상속 절차(Administration)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법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상속집행인 (Administrator)이 선임되며 이때 상속재산분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법



변호사, 공인회계사
길벗 법무법인 대표
삼우 회계법인 파트너



이 정한대로 분배가 됩니다. 이때도 사망인을 대신하여 Estate가 설립되며 상속집행인이 상속세 및 채무 등을 Estate 재산에서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법이 정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유산상속 절차가 종결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집행인의 적법한 상속재산 처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상속집행인이 상속재산규모에 적합한 보증보험 (Bond)을 구입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육권 후견인 (Guardian of Person)과 재산관리 후견인 (Guardian of Property)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후견인 (Guardian of Person) 과 그 자녀에게 배분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후견인 (Guardian of Property)이 선임 되어야 하는데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유언에 지정한 후견인(Guardian)이 미성년 자녀양육과 자녀의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인이 되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자녀 양육을 위한 후견인은 생존한 부모가 되지만 재산관리 후견인은 법원이 지명하는 법정후견인 (Guardian ad litem)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명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때 까지 법원이 지명한 변호사가 법정후견인이 되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아주 작은 경우는 상속 법원에서 간단한 절차(Voluntary Administration)를 통하여서 상속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또 적은 금액의 현금, 가치가 적은 가구 및 자동차등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Beneficiary)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혼자서 작성한 자필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반드시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이 유언이 본인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절차(Publication)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언으로 분배할 수 없는 재산 (Non-Probate Asset)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는 집 또는 예금등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생명보험 및 은퇴연금 등도 미리 수혜자(Beneficiary)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상에 누구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든 상관이 없이 미리 지정된 수혜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법의 적용을 받지만 타주에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이 소재한 주의 상속법원을 통하여서 그 재산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정후견인 (Guardian ad liter)

지금까지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절차를 살펴 보았지만 본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갑자기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본인이 의사 결정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후견인(Guardian)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본인의 의사 결정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사의 증언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또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 할 때에는 본인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인 목적이므로 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정후견인(Guardian ad liter)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복잡한 절차와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관리와 처분을 위임하기 위하여 서는 영속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에 미리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대리인 (Agent)으로 지명해 두면 나중에 본인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 하였을 때에 복잡한 절차 없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즉시 재산권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추후 본인이 의사 결정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 위임장은 무효가 됩니다.

의료위임장 (Health Care Proxy)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미리 본인을 대신하여 치료 방법 (Health Care)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위임장 (Health Care Proxy)에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두면 본인이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치 의사가 판단 할 때에 대리인이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이 법원에 대리인 (Health Care Guardian)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의식은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생존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생명유언장(Living Will)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생명연장 치료방법 등을 명기해 두면 의사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최대한 고통만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생명유언장에 미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두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작, 튜브영양공급, 인공신장투석등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를 생명유언장에 명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원하면 기증의사를 미리 밝혀 둘 수 있으며 장례방법 (매장 또는 화장)에 관해서도 미리 본인의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하여 평균기대 수명이 80세가 훨씬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잘 준비된 유언장 (Will), 신탁 (Trust), 재산처분에 관한 영속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의료위임장 (Health Care Proxy)과 생명유언장 (Living Will)등을 작성해 두면 재산의 보호와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은 물론, 본인과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잘 준비된 여생을 보낼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성경공부 하 GO! 퀴즈 풀 GO!

상품 받 GO! 출제 김기호 장로

아가페 413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선	교	의	달	예	수
한	복	음	서	난	
목	회	질	하		
자	고	송	마	르	다
	록	갈	사	사	
가	거	라	하	다	
인	애	진	퇴	양	난

아가페 412호 문제정답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8월 19일(주)-8월 26일(주)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9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가로 푸는 열쇠

1. 이달의 우리교회 표어
3. 선 머리털 (신32:25)
5. 옛 약속 (고후 3:14)
6. 사사시대 말기의 대제사장 (삼상 1:9)
9. 유다 사람 여라므엘의 아들, 헤스론의 손자 (대상2:25)
10. 아곱의 넷째 아들 (창 29:35)
12. 아대의 아들 (대상2:47)
15. 인류를 구제할 사람. 메시아 (눅 1:47)
16. 책임을 면함 (신 15:1)
17. 온 몸이 흠집투성이가 되어 형편없이 됨 (고사성어)

세로 푸는 열쇠

1.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 (삼상 1:1)
2. 소 한 마리가 끄는 짐수레 (국어)
4. 메소보디아 베히성 아몬 강변에 사는 브울의 아들로 선지자이다. (민 22:5)
7.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처 (창24:15)
8. 구스 여왕 (행 8:27)
11. 펠 하바, 하와이에 있는데, 제2차대전이 여기서부터 시작 되었다. (역사 상식)
13. 여지없이 흩어지거나 깨어진 모양 (삼상 2:10)
14.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봄 (창 32:20)

정답자

홍창분 집사 이영경 집사 김은순 권사 최정우 권사 문영근 집사

*7월호 십자말 당첨자 추첨은 한선일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And I will bring you in unto the land, concerning the which I did swear to give it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nd I will give it you for an heritage: *I am the LORD.*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我起誓应许给亚伯拉罕, 以撒, 雅各的那地, 我要把你们领进去, 将那地赐给你们为业。我是耶和華。
출애굽기 出埃及记 6:8

2018년 6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박 병 옥 여호수아 4-L11-3	 박미연 마르다 4-L11-3	 심규완 청장년부 3-B53-1	 심현정 청장년부 3-B53-1	 양현성 청년대학부 4-Y-1	 권혁재 청년선교회 1-Y-3	 유한나 청년선교회 1-Y-2
 배광미 아론 2-F3-1	 배귀자 한나 2-F3-1	 이관식 모세 2-F12-1	 박성임 루디아 1-F4-3	 이영준 바울 2-F13-4	 김위화 마리아 2-F13-4	 이준화 청년대학부 2-F13-4
 이문욱 중등부 2-F13-4	 강덕경 모세 1-F4-1	 강두임 사라 1-F4-1				

●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hinese Ministry

 余妹妹 拿俄米-4-2	 刘凯 提摩太-青1-2	 刘瑛 提摩太-青1-4	 吴发严 提摩太-青1-3	 吴小惠 拿俄米-5-1	 周颖 拿俄米-4-3	 崔升虎 提摩太-青1-5
 张昊菁 提摩太-青1-5	 张艳霞 拿俄米-2-5	 攀高凤 拿俄米-2-4	 曾彩珍 路得-1-4	 李俊 路得-4-2	 李美玉 路得-6-2	 杨满梅 路得-4-2
 梁南南 路得-2-2	 殷建忠 腓立比-3-2	 王世英 路得-4-2	 王美云 拿俄米-3-1	 王香倩 路得-1-4	 蔡小召 腓立比-3-1	 郑敏翔 腓立比-5-1
 郭小震 拿俄米-4-3	 陈巧玲 拿俄米-2-1	 高宁 路得-2-1	 高惠敏 提摩太-青2-4	 黎文献 腓立比-5-3		